

고전
통

고전통

강일우·김경윤·송원석 지음



먼저 읽은 현직 교사들의 강력 추천!
아주 새로운 청소년 민주시민 교양 시리즈, 고전통!
읽어보세요! 자신 있게 20% 무료 공개합니다!

- ③ 환경(근간)
- ④ 문화(근간)
- ⑤ 역사(근간)



판권
판권

책머리에_왜 고전툰인가? _ 6

플라톤『국가』_ 11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_ 57

한비자『한비자』_ 101

마키아벨리『군주론』_ 141

루소『사회계약론』_ 181

추천의 말_고전툰, 꼭 읽어보세요! _ 220



왜 고전툰인가?

AI 시대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도 시시각각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문명의 큰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고민과 갈등, 욕망과 희망은 놀랄 만큼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됩니다.

그동안의 청소년 대상 교양도서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쉽게 읽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쓰고, 이해를 돋기 위해 그림과 설명 자료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인문·사회·과학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청년들이나 성인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AI 시대에 이런 방식의 지식 전달만으로 충분한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복잡하고 낯선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힘과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고전툰 시리즈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전툰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성과 세상의 흐름을 함께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로 고전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올림을 주는 책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진짜로 말을 걸 수 있는 책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고전툰은 지식을 외우라고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고전툰을 읽으며 수많은 질문과 다양한 관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생각이 자라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인간이 왜 서로 다투고, 어떻게 공존을 배우며, 어떤 사회를 꿈꿔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깊어지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싶은 마음의 씩이 자라날 겁니다.

한 권의 고전을 네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히스토리

고전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책이 쓰인 시대 배경과 저자의 삶

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맥락, 당대의 사회문제, 그것에 대한 저자의 시선과 대응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며, 고전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쓰였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이제스트

고전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 살아남은 ‘책 중의 책’입니다.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읽히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제스트는 고전이 품고 있는 핵심 메시지와 인류가 그 책에서 길어 올렸던 통찰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고전툰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도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읽히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고전툰은 고전의 핵심 내용을 틴 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오늘의 독자들이 고전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고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줍니다.

북토크

고전툰 시리즈를 만들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코너입니다. 북토크의 타이틀은 ‘지혜의 광장’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광장)는 지혜를 서로 나누고 경합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었습니다. ‘지혜의 광장’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빛나는 책의 저자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성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상의 북토크 무대입니다.

‘지혜의 광장’에 등장하는 참여자들의 얘기는 ‘역사 속 사상가들의 저서와 사상을 충실히 참조하여, 그들의 주장을 오늘날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가상의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인물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의 사상이 요약·정리된 대화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형식은 ‘역사적 인물의 사상을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광장’은 단순한 상상이나 재미에 기대지 않습니다. 각 인물의 발언은 실제 저술과 시대적 맥락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의미가 왜곡되거나 단순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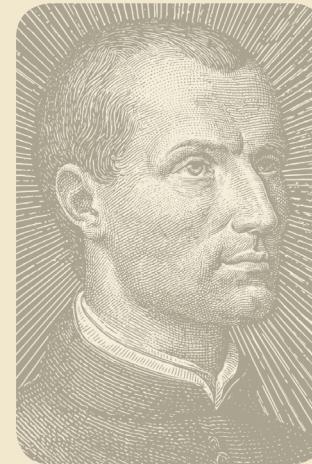
‘지혜의 광장’은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상을 전달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품위 있게 토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성들의 생각을 생생한 대화로 접하며 독자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토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의 장입니다.

고전은 우리 모습을 비출 수 있는 지혜의 거울과 같습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 지혜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모쪼록 고전툰 시리즈가 독자들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교양과 토론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일우 · 김경윤 · 송원석

마키아벨리 『군주론』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통합하지 못한 채, 각 지역과 계층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좇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외세의 침략에 맞서 스스로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힘에 기대어야 겨우 유지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는 어떤 사람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리더, 좋은 사람 말고, 필요한 사람!

마키아벨리, 당신은 누구?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보통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배신도 서슴지 않는 냉혹한 태도를 가리킬 때 쓰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이 말의 주인공이 바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입니다.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악마의 작가’로 만든 책이『군주론』입니다. 그는 대체 왜 이런 책을 쓰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피와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르네상스의 짐장이었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시작됩니다. ‘르네상스’ 하면 레

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떠오르죠? 문화적으로 눈부신 황금기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하듯이, 이탈리아는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교황령, 나폴리 등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도시국가들은 마치 오늘날 이탈리아 세리에 A의 프로축구 구단들처럼 서로 경쟁하고 싸웠는데, 문제는 그라운드에 규칙도 심판도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외부 강대국들의 개입이었습니다. 영국과의 백년전쟁(1337~1453)에서 승리하고 중



피렌체 전경.

양집권이 강화된 프랑스가 나폴리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침입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신성로마제국이 이탈리아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위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도시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이들 외세와 동맹을 맺거나 배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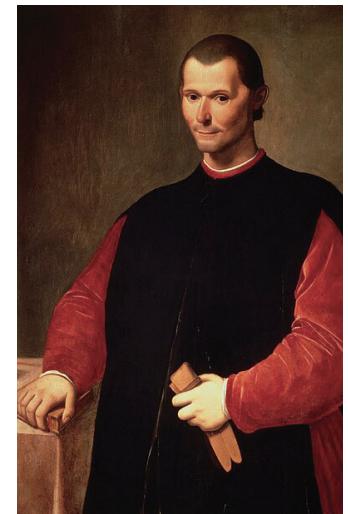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국가들은 상비군을 두고 나라를 지키지만, 도시국가들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선수를 사 오듯 외부의 용병들과 계약을 맺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용병들은 돈만 주면 누구를 위해서든 싸웠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편에서 싸우다가도 내일은 더 많은 돈을 주는 적에게 불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심지어 전투 중에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갑자기 돌아서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싸움 자체를 질질 끌면서 양쪽 모두에게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평화조약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정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들은 혼란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복잡한 외교 게임을 벌여야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동방무역으로 쌓은 부를 바탕으로 육지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밀라노는 북부 이탈리아의 패권을 노렸습니다. 교황령은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

를 동시에 추구하며 중부 이탈리아를 장악하려 했고, 나폴리는 아라곤 왕가와 프랑스 왕가 사이에서 출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라곤 왕가는 이베리아반도의 아라곤 왕국을 중심으로 카탈루냐,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 지중해 전역에 제국을 건설한 왕조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정글의 한복판에서 14년간 외교관이자 국방위원으로 일하며, 정치의 생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피렌체에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인문학 교육을 받았고, 29살의 젊은 나이에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이상적인 정치를 논하는 학자가 아니라 각국의 궁정을 직접 밟아 누비는 실무형 외교관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중요한 외교 임무는 1500년 프랑스 궁정 방문이었습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강력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티토(Santi di Tito)가 그린 마키아벨리 초상화.

프랑스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6개월 간 머물며 프랑스 왕의 야심과 한계를 파악했습니다.

1502년과 1503년에는 마키아벨리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인 야심가 체사레 보르자(Cesare Borgia)입니다. 당시 그는 이탈리아 북동부 로마냐(Romagna) 지방의 군사적 정복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보르자의 군영에서 몇 달간 머물며 그의 정치적 수완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르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배신과 암살도 서슴지 않았고, 잔혹하면서도 치밀한 정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반란이 심한 로마냐 지역을 통치할 때 잔혹한 총독을 앞세워 질서를 회복한 뒤,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그 총독마저 처형해버리는 냉혹함도 보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보르자의 모습에서 공포와 감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정치적 효과 면에서는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르자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좌절됩니다. 아버지 교황이 사망하면서 교황청의 지원을 잃고 세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운이 다한 것이지요. 마키아벨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정치에서 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치밀한 계획을 가졌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변수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은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은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북부 이탈리아까지를 영토로 하고, 수백 개의 봉건 세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복합적 제국이었습니다. 1507년 그는 궁정을 방문해 신성로마제국의 분권적 정치 구조와 황제의 제한된 권력을 목격하고, 중앙집권적 통치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510년에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군사 작전을 따라다니며 전사(戰士) 교황의 정치적 야심을 직접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약속과 배신,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외교 무대의 치열한 현장을 온몸으로 겪은 마키아벨리는 당대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피렌체를 사랑했고, 어떻게든 혼란 속에서 조국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는 용병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깨닫고 시민군 창설을 추진했습니다. 1506년 그의 노력으로 피렌체에 시민군이 창설되었고, 1509년 피사 정복 작전에서 이 시민군이 실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마키아벨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512년 피렌체 공화정이 교황 율리우스 2세와 스페인이 주도한 ‘신성동맹’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피렌체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강력한 군주 가문인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되찾으면서 반대편 진영이었던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때는 국가의 운명을 논하는 최고위 공직자가 이제는 조국을 배신했다는 의심을 받는 위험 인물로 전락한 것이죠.

그는 모든 직위를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1513년 메디치 가문에 반대하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문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커던 것은 평생을 바쳐 헌신한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풀려난 그는 고향 근처의 시골 마을로 추방당해 사실상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각국의 왕들을 만나 담판을 짓던 외교관이 이제는 허름한 선술집에서 닭싸움을 구경하고 나무꾼들과 푼돈을 걸고 카드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먼지 묻은 농부의 옷을 입고 현실의 밑바닥을 살았지만, 밤이 되면 가장 좋은 궁정 의복으로 갈아입고 서재로 들어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

남고 승리할 수 있는 군주의 조건을 치열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체사레 보르자에게서 본 냉혹한 현실주의와 고대 로마 황제들의 통치술, 그리고 자신이 14년간 외교 현장에서 목격한 권력의 속성을 종합해 『군주론』을 완성했습니다.

『군주론』은 새로 피렌체의 군주가 된 로렌초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에게 바치는 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주를 위한 조언’이었지만, 그 속내는 ‘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책상물림 학자가 아니라, 14년간의 외교 현장에서 온갖 인간 군상을 겪으며 현실 정치의 속성을 깨뚫어 본 전문가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경험이 있습니다. 부디 저를 다시 피렌체의 정치 무대로 불러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절박하고 비장한 자기소개서이자 호소문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군주론』을 통해 다시 정치판에 복귀하려는 마키아벨리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던 해에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에서 축출되고 공화정이 복원되었지만, 그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위대한 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뒤 출간된 『군주론』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559년 가톨릭교회는 이 책을 금서목록에 올렸고, 수많은 종

교인과 도덕군자들은 마키아벨리를 악마의 교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때로는 비도덕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은 기존의 기독교적 정치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군주가 필요에 따라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겨도 된다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책이 이토록 위험하게 여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를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완전히 떼어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착해야 하고, 군주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도덕적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때까지의 생각과 달리 마키아벨리는 착한 리더와 유능한 리더는 다를 수 있으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비도덕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500여 년 전 피렌체의 한 실직한 외교관이 시골 서재에서 쓴 작은 책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정치학도들의 필독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군주론』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권력에의 의지와, 선과 악의 경계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 모두가 군

주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권력을 선택하고, 여론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 운명에 책임을 집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권력과 정치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군주론』 핵심 쑥쑥!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군주에게 바치는 정치적 조언서입니다.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용감하게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민심을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낡은 도덕과 윤리에 얹매이지 말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탓하지 말고, 국가를 보존하고 번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과감하게 실천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군주국의 종류와 그것을 얻는 방법. 둘째, 국가의 핵심인 군대 조직법. 셋째, 군주가 갖춰야 할 행동 방식과 덕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이탈리아가 처한 위기 상황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주목받는 것은 군주의 통치 기술과 리

더십에 대한 파격적인 주장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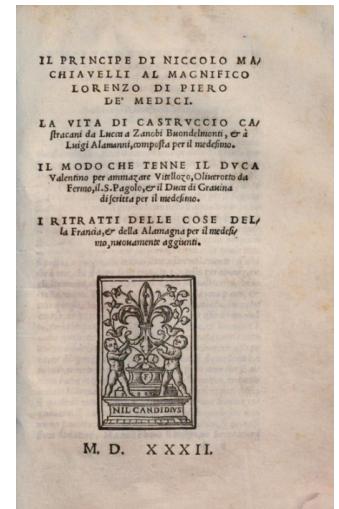
자신만의 군대를 가져라

마키아벨리는 먼저 군주국을 세습군주국과 신생군주국으로 구분합니다. 세습군주국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나라도, 백성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신생군주국은 새로 권력을 잡은 군주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하므로 훨씬 어렵습니다.

그는 신생군주국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용병이나 외국군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용병은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거나 배신할 수 있으며, 외국군은 오늘은 도와주더라도 내일은 정복자가 되어 군주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정한 인간 본성을 알아라

마키아벨리의 모든 주장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은혜



1532년 출간된 『군주론』 초판.

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험 앞에서는 비겁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대담해지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은 도덕이나 의리보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인간이 본래 착하다는 환상에 기대지 말고, 비정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깨뚫어보고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주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인간관에 기대려 한다면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하라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군주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은가?’

그는 둘 다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은 그들의 변덕과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불안한 끈이지만, 치벌에 대한 두려움은 군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통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단서도 덧붙입니다. 백성의 재산을 빼앗거

나 명예를 짓밟아 미움을 사는 군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질서를 만들지만, 미움은 반란과 배신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를 겸비하라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덫을 알아차리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쫓아내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사자는 힘이 세지만 눈앞의 덫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럽지 못하고, 여우는 피는 많지만 힘센 늑대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때로는 사자처럼 압도적인 힘과 위엄으로 적을 제압해야 하지만, 때로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유연하게 상황을 해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약속을 지킨다면 군주도 신의를 지켜야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주도 필요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도덕적 이상보다 현실적 생존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운명에 맞서는 역량을 키우라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전적으로 운(運)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절반은 통제 불

가능한 운명, 나머지 절반은 그것에 대응하는 인간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운명은 변덕스러운 날씨나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거센 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역량 있는 군주는 그저 운명을 탓하며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미리 둑을 단단히 쌓아두어 범람이 닥쳐도 피해를 줄이고, 오히려 그 물길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치와 도덕은 다르다

마키아벨리의 주장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이전 시대의 전통적인 덕목들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에서부터 중세 기독교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군주는 자비·신의·정직·관용·경건함 같은 도덕적 미덕을 갖춰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군주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군주는 그런 미덕을 실제로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덕을 고집하다 나라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군주는 미덕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할 뿐, 필요할 때는 악덕도 과감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잘 사용된 잔인함’과 ‘잘못 사용된 잔인함’을 구분했습니다. 한 번의 단호한 처벌이 장기간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폭력은 오히려 반란과 혼란을 불러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언제, 어떻게 잔인함을 사용할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족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얻어라

마키아벨리는 사회를 크게 일반 백성과 귀족으로 나누어 바라봤습니다. 백성은 억압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귀족은 권력과 특권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귀족은 언제든 군주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그는 특히 새롭게 권력을 잡은 군주에게 ‘귀족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백성의 지지를 얻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귀족은 경쟁자이자 잠재적 반란 세력이 될 수 있지만, 백성은 군주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자와 여우가 돼라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마키아벨리 Niccolò Machiavelli 1469~1527

토론자

칸트 Immanuel Kant 1724~1804

공자 孔子 기원전 551~479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빛나는 책의 저자를 모시고
인류 역사의 뛰어난 사상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나누는
'지혜의 광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아고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책 중 하나인『군주론』을
출발점 삼아, 리더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이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새로운 정부 수립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시민들은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500여 년 전 마키아벨리가 던진 화두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뜨거운 토론을 위해 제가 가장 뵙고 싶었던 세 분을 한자리
에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마키아벨리 선생님, 독일의 위
대한 철학자 칸트 선생님, 그리고 동양 유학의 시조 공자 선생님
입니다.

먼저 토론자 두 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칸트 선생님은 독일의 철학자로,『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
판』,『판단력비판』의 3대 비판서를 통해 근대 철학의 새로운 지평
을 열었으며, 특히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누구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이라는 보편적 도덕법칙을 제시
했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로,『논어』를 통해 전해
지는 그의 사상은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이 되었으며, 특히 사람
다움을 강조하는 인(仁)과 힘이 아니라 도덕으로 인간을 다스려
야 한다는 덕치(德治)를 강조한 정치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을 함께 모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키아
벨리 선생님은 권력 유지의 기술을 강조하며 현실 정치의 냉혹함
을 보여주었고, 칸트 선생님은 보편적 도덕법칙을 제시하며 도덕
없는 권력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덕으로 다스리
는 지도자상을 제시하며 도덕과 권위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이

상을 꿈꿨습니다. 세 분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단순히 ‘좋은 군주란 누구인가?’라는 옛 질문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질문까지 확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마키아벨리: 단연 결과를 만드는 유능함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리더는 우왕좌왕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어떤 리더는 때로 비판을 받더라도 과감한 봉쇄나 백신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리더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마스크는 구할 수 있는가?’ ‘백신은 언제 맞는가?’ 같은 현

실적인 결과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최근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아름다운 수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결과였습니다. 리더는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칸트: 저는 그 입장에 처음부터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라는 좋은 목적을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정보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낳더라도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한국의 계엄 선포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그것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리더의 첫 덕목은 유능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선한 의지입니다.



공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흥미롭습니다. 리더의 첫 덕목은 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덕(德)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국방력과 경제력과 국민의 신뢰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제자의



질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혼란도 결국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책임을 지게 되고,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리더가 먼저 진실한 인격으로 신뢰를 얻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리더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신뢰 없는 권력은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아고라: 흥미롭군요. 결과를 만드는 역량, 선한 의지, 국민의 신뢰를 얻음. 리더십의 핵심을 꿰뚫는 세 가지 관점이 처음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 가 보겠습니다.

2. 국가 경제를 위해 편법을 써도 되는가?

아고라: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토론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게 엄청난 판세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것도 리더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키아벨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타국에 대한 영향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기반으로 한 강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지요.

트럼프는 강력한 이미지 전략을 구사하며 일견 군주론적 리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전략이 단기적 효과에만 머물렀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민과 동맹국들의 지지를 관리하는 데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리더는 두려움도 중요하지만, 미움은 피해야 하며, 민중의 지지를 뿌리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몇몇 미국의 대자본가와 백인들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미국 국민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운은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내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강제력에 맞서 세계 각국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하여 복

종을 하는 것도, 트럼프의 조치를 악이라고 판단하여 적대적으로 맞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리더의 역량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협상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리더는 강력한 타국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칸트: 트럼프의 태도는 일시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를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교와 통상은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습니다. 내가 던진 부메랑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지요. 세계질서는 강대국만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지키고 보살피는 보편적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던진 관세폭탄은 언젠가 미국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입니다. 일시적 이익보다는 보편적 윤리를 강조하는 나의 생각이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 더욱 중요합니다.

공자 : 현재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들은 과거 미국의 전통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민주주의를 수호

하고 자유와 평등의 대표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역사서 『춘추』의 관점에서 보면 패권을 이용한 폭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아고라: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키아벨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칸트 선생님과 공자 선생님은 미국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3. 사랑받는 리더 vs 두려운 리더, 누가 더 강한가?

아고라: 마키아벨리 선생님, 당신의 책에는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택하라’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에 비유하자면, 학생들에게 인기 많고 친한 친구 같은 선생님과 엄격한 규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무서운 선생님 중 후자가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키아벨리: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그럼에도 사회자의 질문에 답한다면, 나는 학생들에게 인기 를 얻기 좋아하는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용감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오늘은 친구 같은 선생님을 좋아하다가도, 내일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쉽게 원망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적절한 강제를 집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두려움은 학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탈하는 학생들을 교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입니다.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12·3 계엄 선포 당시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든 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격을 모독해서 미움을 사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두려움은 질서를 만들지만, 미움은 반항을 낳기 때문입니다.

공자: 어찌 그리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하십니까! 진정한 스승은 두려움으로 학생들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배움을 계을리하지 않고 인(仁)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저절로 따르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진정한 학생이 바로 교사지요. 북극성이 가만히 있어도 뭇별들이 그 주위를 돌듯이, 교사가 먼저 군자(君子)의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은 마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칸트: 저는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모두 학생을 리더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사랑받아야 할 애완동물도 아니고, 두려움으로 통제해야 할 동물도 아닙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제 용어로 표현하자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지요.

리더는 그들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스스로 도덕법칙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도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4. 소셜미디어 시대의 리더십

아고라: 이제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기업 CEO들은 유튜브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마키아벨리: 지금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제가 말한 여우의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의 잘못된 트윗이나 멘트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리더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더는 더욱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자신의 유튜브를 만들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활동을 홍보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하는 장으로 유튜브는 적절한 정치적 무대가 됩니다. 반면 과거에는 베일에 싸여있었던 정치인의 사생활도 노골적으로 폭로되기도 하는데요. 그에 따라 일상적인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곰이나 사자보다는 여우처럼 행동해야겠지요.

칸트: 그런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거짓 정보나 선동적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더욱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 발언이나 전략적 거짓말은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가짜뉴스의 폐해를 보십시오. 리더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판단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소셜미디어 시대일수록 더욱 ‘진실을 말하라’는 정언명령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자: 소셜미디어는 리더와 백성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더의 진정성이 더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은 금세 들통나고,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최근 젊은 정치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가 더 친근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그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5. 젊은 세대의 리더십

아고라: 오늘 청중 중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래의 리

더가 될 젊은 세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마키아벨리: 젊은 세대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은 아름답지만, 이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기득권 구조,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경제적 불평등 등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완벽한 세상을 기다리지 말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십시오.

칸트: 젊은 세대야말로 ‘감히 알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권위나 관습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인가?’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칙이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말고, 옳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공자: 젊은 세대에게는 ‘배움을 즐기는 마음’을 갖기를 권합니

다. 제가 『논어』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이야기했듯이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는 평생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서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새로운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고라: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마키아벨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마키아벨리: 제가 겪은 세상은 평화로운 학교가 아니라, 이리와 여우가 우글거리는 정글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지상에서 국가를 지키는 법을 썼습니다.

최근 한국 시민들이 목격한 현실을 보십시오. 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라는 아름다운 문서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도덕 교과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시민들의 현실적 판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

간 것도, 시민들이 한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것도 모두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응이었습니다.

저는『군주론』을 쓰면서 악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은 본래 이렇게 작동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진흙탕에 발을 담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세상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현실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토론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고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500여 년 전 마키아벨리가 던진 질문이 여전히 우리 시대의 핵심 이슈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칸트의 도덕주의, 공자의 덕치주의. 이러한 세 관점은 서로 대립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

한 것은 어느 한 관점만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기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현명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리더는 없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리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혜의 광장’은 항상 청중께 질문을 드리면서 끝맺는데요. 그 것은 여기 모신 토론자뿐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토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토론을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서 이어가시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청중께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리더는 누구인가요?”

- ① 냉철하게 현실을 해쳐가는 리더 – 마키아벨리형
- ②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리더 – 칸트형
- ③ 백성의 신뢰를 얻는 리더 – 공자형